제 334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1998년 6월 7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 행 인: 이종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3 전화 (02) 517 - 7651 ~ 5 팩스 (02) 512 - 1225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대학' 개강

취업준비 및 소자본 점포 창업 무료세미나

명예퇴직자 및 실직자, 재취업 희망자, 소자본 자영업(점포)를 준비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시민대학' 이 신설된다.

IMF 한파로 인한 명예퇴직자 및 실직자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꿈꾸더라도 진로선택, 새로운 업종에 대한 경험 미숙, 불안감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취업 및 소점포 창업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강좌는 6월 18일(목)부터 7월 9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20분에 실시되며 창업과정세미나와 취업준비과정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창업과정세미나의 강좌는 개강예배에 이어 신앙인의 경영자세(이종윤 목사), 정신교육특강(채규철 박사), 창업원칙, 창업성공기법, 업종선택 요령(김재술 소장), 접객기법(조춘택 실장), 창업사례 발표(이찬호 사장)등이다.

한편 취업준비과정세미나에서는 위기극복과 신앙(이종윤 목사), 판매의 준비, 영업사원의 기본자세, 신규고객 개척기법(김재술소장), DM을 통한 판촉기법(조춘택 실장),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이윤진 박사), 성취인의 심리(이학주 교수), 서번트 리더십(이번생 국장) 및 성공사례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점심식사와 교재도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는 사무국.

시민대학 조직

학장 이종윤 목사
학감 노문환 장로

총무처장: 이성득 인사과 탁경준, 경리과 정해진
기획처장: 김정현 기획과 김재술, 홍보과 김종윤
실천처장: 김중복 학생과 임훈규, 봉사과 김정희
교무처장: 김태기 교학과 이학주, 학적과 김경아

가족찬양의 즐거움

지난 달 실시된 가족찬양대회에서 사랑상을 수상한 이남북 권사 가족의 특창 순서가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다. 참가자는 이 권사의 큰 아들 김동언 · 김영란 집사 부부와 주영 · 아영, 둘째 아들 김혜언 · 박은영 집사 부부와 신영, 딸 김은미 성도와 예지 등으로 모두 3대에 걸친 10명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제 5대 장로 피택

박두호

서문석

하영수

왕경래

노송성

지난 주일에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5명이 장로로 피택되었다.

24일 특별제직회를 통해 공천을 받은 20명의 후보 중 지난 주 공동의회 시 투표자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 제 5대 피택장로는 박두호(안수집사), 서문석(안수집사), 하영수(안수집사), 왕경래(안수집사), 노송성(안수집사) 이다.

새로 선출된 장로는 6월 13일부터 6개월 간의 교육을 거쳐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치른 뒤 오는 11월 우리 교회설립 제 7주년 감사일과 추수감사절을 맞는 주일에 장립식을 갖게 된다.

그간 장로 및 안수집사 · 권사 선거는 2년마다 실시해 왔으나 1999년부터 당회가 정하기 전에는 매년 5월 중에 실시하게 된다.

순례자 컬럼

기도

기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거룩한 교제며 신성한 대화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호흡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하게도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으되 기도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을 도우시며 따라서 성도가 기도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실패한 자와 같다. 기도는 영혼을 새롭게하고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세계를 움직이는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며 기도는 기도하는 자보다 오래 살아 남아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짐을 나르는 헌신적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사야 강해

두려워하는 아하스

이사야 7장 1 - 9절

본문의 배경은 주전 735년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했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를 이기지 못하므로 아람 왕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기로 했고 다시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다윗의 집에 들려졌습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순간에 접어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고할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스알야숩을 데리고 와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 앞에 스알야숩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데는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스알야숩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입니다. 스알야숩은 유다 백성들에게 묵시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삼가며 종용하라

'삼가라' 는 말은 자신을 돌보라는 뜻입니다(watch yourself).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조용히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입니다.

아하스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무서운데 지금 그들이 에브라임 군대와 함께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가며 경거망동하지 말라 그리고 종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예기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종종 전혀 예기치 않은 풍랑이 불어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들은 "삼가며 종용하라" 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두려움에 떤 것은 남은 자를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문제만 일으킬 뿐 해결할 능력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력으로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염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믿음뿐인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삼가며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사 7:1 - 9)

이종윤 목사

2.두려워 말라

우리는 창졸간에 두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다 다른 것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아야합니다.

3.낙심하지 말라

염려를 하다가 그 염려가 커지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요일 5:4 - 5).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4.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면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습니다(시 127:1).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패하여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권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너진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죄를 자꾸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주님께로 속히 돌아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피택 장로의 변(辯)

"벧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할렐루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의 특은을 입어 피택 장로의 반열에까지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서울교회 믿음의 형제들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오늘의 자리에 서서 7년 전 서울교회가 창립을 앞두고 뜨겁게 기도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떡을 떼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삭발의 이종윤 목사님을 뵈며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복음을 위한 어떠한 고난도 견디리라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합니다.

충성스런 군인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를 돕는 일에, 서울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귀한 직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 박두호 -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속에서도 부족함과 나약함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내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그동안 기도로 돌보아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뜨거운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난 번 공동의회는 저의 삶에 큰 획이 긋고 도전과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껏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넓혀가지 못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그럼에도 일꾼으로 다시 불러 주시는 그 은혜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남다른 사랑과 비전을 한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한 일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른 일꾼 신출되기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신중하게 투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힘써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한 몸 안에 눈과 귀, 코와 입, 그리고 각 지체가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하며 분쟁하지 않는 것같이 맡겨 주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만 전력하고 녹는 소금으로, 비취는 빛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성도님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세움을 받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간단없는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릎꿇고 묵상하며 저의 각오로 대신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럼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 서문석 -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땅에 오셔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피로 몸된 교회를 세우사 분부하심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증인됨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것도 분에 넘치는 은혜일진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젖먹이던 어미소가 법궤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벧세메스길로 향하여 올라가듯 가야 하는 장로로 피택을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돌아봅니다.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항상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하며 책망 받을 것이 없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가르치며 사납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는 효도해야 하고 그 아내는 남의 흉을 안보는 자며 단정하고 충성해야 하고 불신자들로부터도 선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어림도 없이 미달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으신 은혜가 한없이 크시기에 감사함으로 담대히 엎드려 받들겠습니다. 교회 앞에서는 성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빚진자로 섬기고자 합니다.

종살이로부터 출애굽의 놀라운 복을 받은 택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40년 간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수없이 맛보면서도 반역의 연속으로 내달았던 역사를 저 자신도 계속 저지른 과거의 허물을 추억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목양의 고난을 몸에 지신 당회장 목사님과 먼저 세움을 입으신 장로님들의 짐을 함께 지고 그분들이 행한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의 덕을 헤아려 따르려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우심이 이후에도 사랑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 하영수 -

길 잃은 나그네처럼 방황하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요 사랑입니까?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만도 과분한데 이런 고귀한 직분까지 주셨으니 두렵고 감사드릴 뿐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충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몇 가지 다짐을 해 봅니다.

첫째,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신 사명을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인내와 끈기로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셋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넷째, 말씀과 기도로 막힌 담을 헐고 회생정신으로 형제자매와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경건생활과 훈련을 통하여 영성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지원을 바랍니다.

- 왕경래 -

먼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부족하기만 했던 이 죄인을 장로로 피택해 주심을 하나님께 무릎꿇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택해 주셨으니 저는 부족하여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를 잘 섬기며 온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해 주시며 가정에서도 제일로 인정받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치 못한 저를 채찍질하는 뜻으로 불러주신 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못난 이죄인이 이런 사람이 될 수있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노송성 -

'98 홍해작전 진군 시작

'98홍해작전이 6일(토) 진군을 시작했다.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의 작전으로도 불리우는데 이번 홍해작전 새벽기도회에서는 성도의 성화(聖化)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25일(목)까지 20일간 진행될 홍해작전 주력부대는 다음과 같다.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7	8	9	10	11	12	13
교 구	1·2	3·4	5·6	7·8	9·10	11·12	1·2
찬 양 대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사랑부	유아·유치부
전 도 회	마리아	요한	루디아	베드로	에스더	바울	한나
참 모	행정참모부	예배참모부	찬양참모부	동원참모부	홍보참모부	봉사참모부	행정참모부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14	15	16	17	18	19	20
교 구	3·4	5·6	7·8	9·10	11·12	1·2	3·4
찬 양 대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교회학교	유년·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사랑부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전 도 회	모세	마리아	요한	루디아	베드로	에스더	바울
참 모	예배참모부	찬양참모부	동원참모부	홍보참모부	봉사참모부	기획참모부	예배참모부

요일	주일	월	화	수	목
날짜	21	22	23	24	25
교 구	5·6	7·8	9·10	11·12	전교구
찬 양 대	베들레헴	호산나	시온	가브리엘	할렐루야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사랑부	전교회학교
참 모	찬양참모부	동원참모부	홍보참모부	봉사참모부	기획·행정참모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17:17)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5월 새가족 환영회

＊5월의 새가족＊

김현희 이혜민 김금연 박정자 이태헌 이점학
김정란 이성규 허옥숙 김용무 정해진 이애자
노영균 이선옥 박소안 김하숙 최기수 조은영
홍경우 박진헌 김정숙 최지영 최낙원 정병학
이승현 최화숙 최현호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교구소식

◇ 오정수 장로(2교구)는 미국 뉴욕주의 Houghton Academy의 115회 졸업식에서 기도 순서를 요청받아 지난 5일 출국, 13일에 귀국한다.

◇ 김상철 장로(4교구)는 한미우호협회 6월 축제를 주관한다.

◇ 오유식 집사(2교구)는 예배당 2층 칸막이 공사를, 김규태 집사(4교구)는 예배당 정면 동판 글자 공사를 각각 완성시켜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하였다.

'98 홍해작전 조직

사령관 이종윤 목사

참모장 홍정호 장로　　부참모장 최종시 장로

- 기획참모: 노문환 김영준 임훈규 서문석 박두호 김세재 유중관 우지원 김윤자 김명숙 박연순 유명석 이은옥 전정숙 박정원
- 행정참모: 이응선 김광신 김태기 김일용 황정욱 이번생 최형열 맹선재 서춘식 최정자 김숙자 박순자 윤갑숙 이은희 전행자 한정원
- 예배참모: 박철훈 임광식 이남호 윤찬오 홍성주 오형철 한길동 오광환 이승우 이영자 김연욱 박정순 이규희 이정자 정봉금 함은희
- 찬양참모: 윤봉준 나희주 박정선 허희철 이태상 김형택 홍정선 이상호 이부자 김영연 박정옥 이수자 이해순 정정숙 허정자
- 동원참모: 정병무 김대호 하영수 이관규 박두영 이계홍 신용식 최용걸 고윤화 김예환 박정원 이순례 장낙희 조삼원 황 혼 교구간사
- 홍보참모: 이영기 성준경 노송성 조정식 나종영 백수남 안의경 강영자 권순단 박경희 손재겸 이영희 전완순 최금자 황정임
- 봉사참모: 오정수 김상철 왕경래 임상헌 김인수 이완형 김영주 강풍자 강희자 김정희 송정희 이용자 전용순 최양혜 여전도회 회장단

동정

◆이종윤 목사는 9일(화) 서울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선교대회에서, 12일(금)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OCU) 창립 18주년 기념대회에서 각각 특강을 한다.

◇오늘 점심식사는 박두영 집사 · 전행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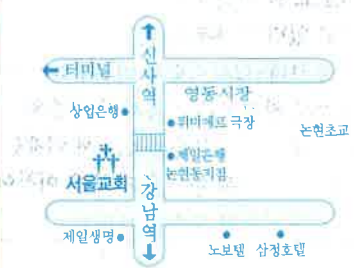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작전을 통해 진리 안에서 거룩해 질 수 있도록
2. 오는 18일부터 시작될 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3.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